

제 92 호

연중 제 22 주일

(강림 후 13)

1974. 9. 1.

# 숲정이

발행인	김영일
인쇄인	함승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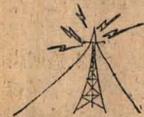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3498)

### 【강론】

## 세도(勢道)의 종말

-높은자여, 내려 앉으라!-  
(루가 14:7-14)

김 봉 희 신부



대통령 하야(下野), 새 대통령 취임! 그리고 또 칼자루 흔들던 그 비서진들 우수수 오르락 내리락... 무슨 천둥이 울리는지 별뿔이 튀기는 지 도시 뉘조차 잡아두기 혼란하다. 일컬어 요지경이라던가, 수라장이라던가? 이국 천민인 몸이 저 멀리 남의 일에 뛰기어들어 소용있으랴만, 거기에 얽힌 희비가 하가관이라 그 쌍곡비경 놓고 오늘 금언(聖句)이나 비춰볼까 하노라.

“무제한의 권력은 지배자를 타락시킨다”(W·피트)던가? 지난달, 우러러 까마득 높고 당당하던 한 최고권자가 하루 아침에 무너져 꺼꾸러지던 「빅-뉴스」, 그 폭음에 세상이 그만 일시에 뒤끓어 와글거리던 걸 생각하니 아찔사! 그 옛날 「바벨탑」의, 붕괴라도 다시 보는 양나도 몰래 숨이 조인다. 행여 이몸도야 그 한 통속, 그와 언술 아니 됐나 하고-

어찌거나, 한도 끝도 모르고 집안이 놀려 치달던 고놈의 과욕, 권욕이 제 병 낳고 스스로 파멸을 부른것이 아닐까? 구약 「바벨탑」의 교훈도, 옛그제 「닉슨」의 망신도, 하여간에 따지고 보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진리와 정의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코 불의를 저지른 탓. 정당하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아니하고 (요한 19, 11) 아래의 불신 위에 힘만으로 이룩한 권세와 그 권모술수한 끝내 저러 부서지고 멸한다는 진리의 경종, 공의로우신 하느님의 심판이시리라 믿어 고개 숙여진다.

하노니, 높은 자리를 탐내고 부귀 권세에 아부하며 지체 높은 사람에겐 사족을 못쓰고 굽신대는 이들, 지금은 그것이 도리며 충성이요 현명한 처세방편이라 쓴 웃음을 지을지 모르리다만, 언젠가 하느님의 저 정도(正道) 앞엔 부끄러히 내쳐질날 있을 것임도 있음 없이 기억하시라. 진실을 등졌던 「닉슨」도 1인 독재를 감행했던 「프랑크」도, 또 누구 누구도 결국엔 다 낙엽 처럼 떨어져 쓸쓸히 쓸쓸히 지고 있음...

불연이던 다시 들어 보시라, 천상 천하의 주(主) 그리스도의 말씀에- 뒷자리에 앉았다가 “계면책에도 험끝자리에 내려 앉아야 할” 꼴을 당하기 전에 아예 미리 내려 앉으시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루가 14:7-11)고 이르시는 금일 복음 저 불멸의 말씀을-

오-악에 짓밟혀 기우는듯 죽음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정의여, 참 삶의 신비여! “교만한자들의 꾸민일을 흠오시고 권세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 세세 대대로 자비를 베푸신”(루가 1, 48-52) 우리 주 하느님은 영원 찬미 받으소서! 아멘

<김계 천주교회 주임신부>

### \* 이 주일의 미사 \*

#### (1) 개회식

□**임당송** 밤낮으로 당신께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의 나의 하느님, 어여뻐 여기소서. 주여 당신은 좋으시고 인자하시며, 당신께 비는 자를 크게 어여뻐 여기시나이디.

####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집회서 3:19-21, 30-31)  
너 자신을 낮추면 하느님께 은총을 받으리라.  
□**창계송** ◎하느님은 자비로이 없는 이의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하느님이 당신 산업에 넘쳐난 비를 내리시어 강마른 그 땅에 생기를 들우셨나이다. 당신의 양떼가 그 앞에 살았으니 하느님은 자비로이 없는 이의 땅을 마련하셨나이다. ◎

□**제2독서**(히브리 12:18-19, 22-24, 성서 P. 517)  
너희가 와 있는 곳은 시온산이며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애를 메고 내 제자가 되어라. 알렐루야.

□**복음**(루가 14:1, 7-14, 성서 P. 169)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 □신자들의 기도

1. 한 알의 밀이 썩어야 생명을 낳는다고 가르치신 주여 이 9월은 한국 천주교회의 밀거름이 되신 순교 복자들을 특별히 공경하고 기억하는 달입니다. 그들의 고귀한 정신을 우리에게 깊이 심어주소서. ◎ 주여...
  2. 진리의 근원이신 주여, 당신의 가르침을 더 깊이 전파하고 일치를 얻고자 교구 순회교육반이 나왔습니다. 진리로 비추시고 용기를 주소서. ◎
  3. 주여 1년 살림을 정리하는 9월입니다. 당신의 어느 교회나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주소서. ◎
- + 주여 비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두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주...아멘

####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행복하여라,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되리니. 행복하여라,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 (4) 폐회식

### \* 숲정이 산책 \*



영명 축일을 맞이하여  
더욱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 (2) 훈 정 이

□성 바오로 서원 탐방□



# 무슨 책을 읽으십니까?

성 바오로 여자 수도회가 홍보 사업을 목표로 전라북도에서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5년이나 되었다. 이름하여 성 바오로 서원. 이제 신축 건물을 마련하여 축성식을 갖는다.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교 앞에 서점보다는 막걸리집과 양장점, 그리고 당구장이 더 많다는 풍자 유행가가 거짓은 아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요사이 무엇을 읽는가라는 물음에, 알파한 주간지의 이름을 서슴없이 낼 수 있는 이 풍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일찌기 디즈레일리는 “책은 인간의 저주다. 현존하는 책의 90%는 시원찮은 것이며, 좋은 책은 그 시원찮음을 논파(論破)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내려진 최대의 불행은 인쇄의 발명이다.” 라고까지 갈파했다.

눈을 성 바오로 서원으로 돌려보자. 놀랍게도 서원을 찾은 20%가 미신자요, 또 20%가 잘려나간 형제들이다. 그런가 하면 일반고등학교생이나 대학생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성직자나 수도자가 10%인데 비해서 일반 교우들은 20%밖에 안된다. 어떤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서글픈 현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비(非) 가톨릭인이 많은 집에서 바람직하고 가톨릭인이 적다는 점에서 서글픈 현상이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판매 실적에 관심을 가져보자. (표 참조) 거의 3분의 1이 전례서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리서와 성서의 합계가 전례서에 미치지 못하는 이 통계는 가톨릭 신자들의 전례 중

심(?)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전례의 중요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2세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아동 대상의 서적이 겨우 5.1% 나갔다는 점도 문제의 하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량문화의 범람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교회 출판물이 외면당하는 현실 점에서 볼 때에는 6개월간에 9천여권의 서적이 전주 교구에 스며들었다는 점은 분명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전주에서 출판물 보급을 위해서 애써준 성 바오로 서원의 공로라고 지적할 수 밖에 없었다.

그간 수녀님들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또는 적장(각급 학교, 체신청, 저금관 리국, 도청등)을 방문하고 도서 진시회를 가졌었다. 교우들의 협조는 물론이려니와 일반 직장인들의 호응에 놀랐다 한다.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 이범

삼(바비아노 체신청장)씨와 김상희(경찰국장)씨, 안복진 신부님이라고 한다.

여학생들에게 좋은 책 읽기 운동을 벌여 준 천진(군영 여중·고 교장)씨와 김철호(성심 여고 교감)씨는 잊을 수 없는 분이라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 학교는 도서 구입비가 모자라(?) 신간 종교서적마저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한다.

현재 바오로 서원에서 수고하는 분은 김마리아, 정 라우렌시아, 진 엘리사벳, 박 마리아 수녀님이다.

바오로 서원의 활발한 움직임이 곧 우리들 영혼의 풍성함과 일치한다 믿으며 서원을 나갔다.



〈표〉 무슨 책이 나갔나?

(1974. 1~6월)

종 류	철학·신학	교리서	성 서	전례서	문학·교양서	아동용	수덕(修德)	사회·교육
권 수	205	1,299	1,482	2,917	1,791	458	521	216
%	2.3	14.6	16.5	32.8	20.2	5.1	5.8	2.4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판토호의 직자  
렉스 V 래토프



仔犬분양 (입한전 애견)  
문의처: 전화 ⑦692(진북동 어은골)

고 외 과 의 원

고 재 상(나자로)

TEL. ⑦ 4 2 5

서중.교육위원회 앞(진북동)

업 소 아 과 의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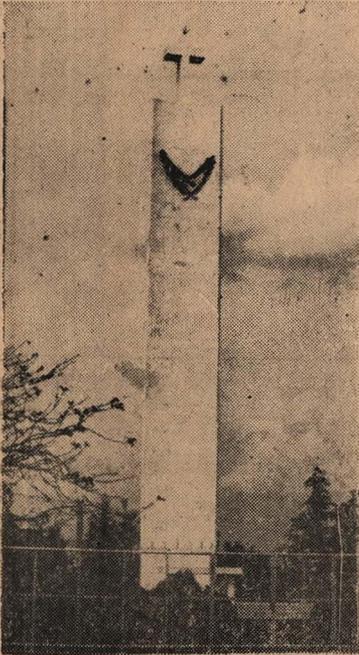
업 의 도(시몬)

TEL. ⑦ 6 8 5 9

서울은행 옆 이치과 뒤

□복자성월□

# 순교자 현양탑



한 알의 밀이 썩어야 생명을 낳는  
아주 소박한 이 진리를  
죽음으로 증거한  
그 장한 넋을 기리는 현양탑이  
그들의 피로 다져진 여기 숲정에서 있  
습니다.

이 누갈다님이 순교한(1801년) 이곳에  
반세기가 지난 병인년(1866년)에는 또다시  
거룩한 피를 뿌려 당신을 증거한  
일곱 분 장한 복자의 뜨거운 숨결이 머물렀  
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바라고 바라던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상심하거나 실망하는 일없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순교합니다.」

.....

아버지,  
저들을 하루 속히 성인품에 올려 주십시오.

1973년 복자 축일에  
(전주 해성 중·교교 구내 현양탑 안내판에서)

## 특 보

숲정이가 전주시내 합동 주보로 발간된 지 52주만에 김제, 부안, 신태인, 정읍  
천주교회(1지구)가 참여하여 그 모습을 달리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그 모습을 새롭게하여 10월부터 전주 교구 주보로 출범합니다. 명실공  
히 교구의 주간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주교님과 교구내 제위 신부님, 각 본당 사도  
회장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74. 8. 27

숲정이 편집실 아람

## 요심이 (58) 김병오



□양서안내□

## 아름다운 새벽

-마해송 지음

성 바오로 서원 (T. 2-7398)

## \*이 주간의 성경\*

2<월> 독서(고린토 전서 2:1-5 성서 P.373)

복음(루가 4:16-30, 성서 P.132)

3<화> 성 그레고리오 대 교황 학자 기념(3월12일)

독서(고린토후서 4:1-2,5-7 성서 P.409)

복음(루가22:24-30, 성서 P.192)

4<수> 독서(고린토전서 3:1-9. 성서 P.374)

복음(루가 4:38-44, 성서 P.134)

5<목> 독서(고린토전서 3:18-23 성서 P.375)

복음(루가 5:1-11, 성서 P.135)

6<금> 독서(고린토 전서 4:1-5. 성서 P.376)

복음(루가 5:33-39, 성서 P.137)

7<토> 독서(고린토전서 4:6-15, 성서 P.376)

복음(루가 6:1-5, 성서 P.137)

## 문 산부인과 의원

문 지 식(레나도)

TEL. ② 2918

경전라사 옆 체신청 뒤

## 이 신경외과 의원

이 종 두(헨리고)

TEL. ② 2646

아관원 옆. 구 대구집

## 교우들의

### 건강 상담과 물리 치료

...고혈압, 신경통, 해소천식,  
지압...소화불량, 소아마비, 기타  
...병명 미상의 질환에 특효

김 용 택(모이세)

연락처: 진북 고등 공민학교 옆  
(진북 2동 1157의 10)

제4지구 6개 본당 소식

1. 본당 순회 교육 실시 (주최: 교구 사무 협의회)

기 간	본 당	강 사
8월 31일(토)	정 음	이상용, 송재진, 정주복 선생, 김원식 수녀
9월 1일(일)	창 인 동	김영진 신부, 김규승, 김성원 선생, 김영희수녀

2. 한국 평신도 협의회 정기총회 (8월 30일 - 9월 1일)

참가자: 조성호, 한상강선생, 김종택, 신부

3. J.O.C 수련회 (8월 31일~9월 1일, "완주 송광 캠프장")

4. 성 바오로 서원 신축 이전 축성식 (9월 2일 오후 3시)

우리 지역 사회에 성서 보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성 바오로 여자 수도회에 뜨거운 박수와 격려 아끼지 맙시다.

5. 주교님배 정팔 테니스 대회 (8월 28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A조 우승 유장훈, 합승천 신부 조 준우승 법석규, 이재후 신부 조

B조 우승 김환철, 안용기 신부 조 준우승 김영신, 김종길 신부 조

6. 합승천 신부님 MBC TV 일요 초대 손님으로 출연 (오늘 7시반~8시)

7. 강몬시들 4주기 (9월 2일)

8. 가톨릭 센터 영어 교실 (9월 2일 오후 7시반 시작)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서석구 사도 회장 이복석

1. 미사 시간 변경

- ① 평일미사~중전과 같음
- ② 토요일 특전미사~오후 6시 (중·고등 학생미사)
- ③ 주일~오전 6시, 10시(공식미사) 오후 4시(어린이미사), 오후 7시반

2. 꾸리아 윌레회 (다음 주일 오후 2시)  
 3. "9월은 교무금 완납의 달"  
 하느님께 성스러히 바칠 우리들의 본분인 교무금을 이달안에 완납하모르서 새 회계년도를 새마음으로 맞이 합시다. (미납금 1,149,050원)(35%)  
 지난주일 봉헌금 40,111원, 감사 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9월은 복자성월 매일 저녁 미사후에 공동으로 성월을 바칩시다.

- 1. 사도회 윌레회 (오늘 공식 미사후)
- 2. 신용조합 9월 1일 부터 대부 실시 사무실에 문의 바람
- 3. 교무금 완납 요망 9월말로 74년도 결산을 보게 됩니다.
- 4. 성우회 윌레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지난주 성미 3말 4되, 누제 303말 1되  
 지난주일 봉헌금 12,150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합승천 사도 회장 조해형

- 1. 안토니오 재속 형제회 윌레회(오늘 10시 미사후)
- 2. 노송 신용조합 윌레회(다음 주일)
- 3. 예비신자 송광사 소풍(오늘 9시, 성당에서 출발)
- 4. 예비신자 교리 개학(다음주일, 시간은 중전과같음)
- 5. 학생회 윌레회(오늘 10시미사후, 교리시상식 있음)
- 6. 사도회 각 부장님들, 75년도 예산안 제출요망. 9월 7일까지 재정부장님께 제출하세요.
- 7.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중노 2가 이규하(5천원), 광예순(3백원)  
 중노 1가 김부자, 권누시아(각 5백원)  
 인후 1가 김진호(1,200원), 남노 김순이(1천원)  
 누제 1,516,997원  
 지난주 신축 성미 3말 5되, 누제 207말  
 지난주일 봉헌금 11,30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 1. 각 부장님들은 75년도 예산안 제출 바람. 사도회 각부 예산안을 다음 주일까지 내주세요.
- 2. 토요일 부터 아동교리반 시작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3. 9월 7일 부터 미사 시간 변경  
 ① 토요일 아동 교리 있을 때는 7시 저녁미사  
 ② 보통미사와 저녁미사는 7시 30분
- 4. 월말 재정 보고, 계산판을 잘 읽으세요.
- 5. 이승현(베드로)씨, 신임 교육부장으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 6. 오늘 사도회 윌레회는 다음으로 연기(추후 발표)
- 7. 본당 신부 명명축일에 보내주신 영적·물질 예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축 결 혼 ★ 9월 9일 10시  
 신랑 김길수(알로이시오)군 신부 소영숙(테레사)양  
 지난 주일 봉헌금 11,71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 1. 아동교리반 실시(매주 토 오후 4시)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 2. 예비신자 교리 학생 매주 토 오후 5시 일반 매주 토 오후 8시 신자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 3. 교무금 독려 사도회 위원과 총무님께서 가정방문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4. 어머니 미사(매주 금 오전 10시) 어머니들의 편리한 미사 시간을 잊지 맙시다.
- 5. 건의「합」을 설치 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본당 발전을 위하여 건의하여 주시기 이 합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학생 P 단원 모의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 7. 신용조합 임원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지난주일 봉헌금 7,485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정승재 사도 회장 송재진

- ☆ 특 보 ☆  
 부부 예비자 교리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30분)  
 중·고학생 예비자 교리: 매주일 오후 2시정각
- 1. 방지거 3회(오늘 오후 1시 30분)
  - 2. 자모회 년총회 (다음주일) 피정 토요일 오후 2시부터
  - 3. 재경부 소식 교무금 미납하신분은 9월중순까지 완납 요망 각 구역장과 사무장 가정방문에 적극 협조 요망

● 금주의 숭정이 은인 문 산부인과 의원 문 지식(레나도)님 감사합니다. 전화 2918 (경천라사 열 체신청 뒤)  
 ※ 숭정이 1주분은 5,000원입니다. 은인이 됩시다.  
 지난주일 봉헌금 43,292원, 감사합니다.